

魏祥奎박사 가족

서울대 항공공학과(현 항공우주공학과)의 창설자로
 우리나라 항공계의 산 증인인 위상규박사는 2남1녀와 사위가 아버지를 따라
 과학의 길을 걷고 있다. 장남 燦씨는 미국 아리조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차남인 丙煜씨는 하와이대서 항공물류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장녀 奉愛씨 부부는 의사로 활약하고 있다.

2남1녀가 우주항공학 교수 및 의사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청년기를 보낸
 魏祥奎박사(70·서울대 명예교수)는
 전쟁을 통해서 항공인의 꿈을 키운 항

공 1세대다.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현
 항공우주공학과)의 창시자로 91년 정
 년퇴직을 할 때까지 항공과 한평생을

살아온 우리나라 항공계의 산 증인이
 다. 위상규박사의 자녀는 2남1녀. 아버
 지의 대를 이어 항공의 길을 걷고 있는
 장남 燦씨는 현재 아리조나주립대학 항
 공우주공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장남은 美서 항공우주공학 교수

아버지보다는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의대의 길로 들어섰다는 장녀 奉
 愛씨는 을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차남인 丙煜씨는 사실은 도시교통공학
 을 전공하여 아버지와는 전공은 다르지
 만 역시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
 수로 현재 하와이대학에서 항공 物流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항공인인 위상규박사는 부인
 崔敬姬여사와 결혼을 하면서 의사집안
 과 인연을 맺게 된다. 최경희여사의 아
 버지인 崔正烈씨와 큰아버지인 崔景烈



▲ 미국 아리조나 페닉스에서 가진 위상규박사 칠순기념으로 찍은 가족사진

씨는 당시 평양고등보통학교에서도 알아주는 수재중의 수재로 두분 모두 일본고등학교를 거쳐 당시 공대로는 최고 학부인 일본경도제국대학을 나왔다. 위상규박사의 장인인 최정열박사는 이미 평양고보 4학년때 일본고등학교에 합격했고 한국 최초로 정식으로 일본의 과대학을 졸업했을 뿐 아니라 한국 최연소자로 일본 의학박사학위를 받은 장본인이다.

장인은 최초의 日 醫大출신

정식코스대로 한다면 평양고보 5학년때 일본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또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일본고등학교에 합격하기란 그 당시로선 상당히 힘들었고 더군다나 한국학생은 아주 우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합격시키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이수했다고 한다.

이후 최정열박사는 철원 도립병원 소아과에서 과장으로 한창 촉망받을 즈음 환자에게서 전염된 장티푸스로 사망했다. 또한 최경희여사의 큰아버지인 최경열씨는 토목공학을 전공한 한국 토목공학계의 대부로 토목공학회 창설은 물론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 분이 설계한 작품으로는 1937년에 만든 한강대교가 있다. 또한 최경열박사는 초대 건설부 장관을 거쳐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상규박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은 셋째 동서인 이원복씨다. 동서인 이원복씨와는 서울대 동기동창으로 당시 항공조선공학과에는 항공을 전공했던 사람이 4명, 조선을 전공했던 학생이 6명으로 그때 항공을 전공했던 4명중 2명이 바로 위상규박사와 이원복씨다. 이후로 이원복

씨와 위상규박사는 우리나라 항공공학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일해 오게 된 것이다.

위상규박사는 여수 순천중학교 시절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상당히 총명한 수재였다고 한다. 그러나 수학에선 한번도 1, 2등을 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다. 그도 그럴 것이 위상규박사의 반에는 우리나라 수학의 대부인 윤갑병씨와 김정수씨가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윤박사와 김박사는 일

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대 수학과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 후 서울대 수학과에의 기틀을 다진 우리나라 수학계의 대들보가 되었다. 위상규박사는 어린시절 같은 급우로 너무나 강적을 만났던 학창시절을 추억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이 남기고 간 쓰라린 현실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기술입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한다. 한편 전쟁의 화려한 꽃인 항공기술은 위상규박사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고 항공계열중 파일럿이나 비행기 설계, 기술자를 계속해서 꿈꿔왔다고 한다.

졸업을 몇개월 앞두고 6.25동란이 일어났으나 당시 위상규박사는 이원복씨와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항공기술원 양성소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회사인 KNA에서 잠깐 근무를 하는



▲ 미 5공군 당시 출격 전 전우와 함께한 위상규박사(右)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후 이원복씨는 공군에 들어가 정비 분야에서 계속 일하다가 항공수리창장까지 역임하였고, 위상규박사는 공군사관학교에 있다가 미 5공군에 편입했다.

6·25땀 1백차례 출격 경험도

6.25발발 당시에는 1백차례에 가깝게 출격을 하여 생사를 넘나들기도 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위박사는 한국 정부로부터는 을지·충무·화랑·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목련장, 미국 정부로부터는 비행훈장 2개와 수훈비행십자훈장을 받았다.

실제로 위상규박사가 공부하던 시기는 우리나라 해방과 6.25라는 동란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불행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이 남긴 잔흔이 아니더라도 위상규박사의 핏속에는 1600년대에 이미 국내지도는 물

론이고 유럽지도까지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천문지리에 밝았던 위박사의 10대손 할아버지(魏存齊)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항공기술은 단순히 항공기 제작에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 범위가 우주까지 넓혀졌다. 56년 위성규박사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기인 이 때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1957년 10월4일 소련은 무인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1호'를 쏘아올리면서 미·소간의 우주경쟁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위박사가 유학했을 당시에는 항공에 우주개념까지 포함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항공우주공학의 탄생배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때부터는 항공에 우주라는 개념이 포함되게 되었고 귀국 후 위박사는 67년에 항공우주공학회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였고 초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공학회는 꾸준히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의 항공수준은 100% 자체기술은 아니지만 무궁화위성까지 쏘



▲ 81년 6월 큰아들 위봉씨의 스탠포드대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아 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전인차 역할을 해왔다.

항공우주기술은 미·소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우리나라는 전쟁후 복구를 위해 토목이나 화학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항공은 외롭게 성장해오다 다시 21세기를 앞두고 통신시대가 펼쳐지면서 서서히 항공우주공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바로 위성규박사의 장남인 위봉씨는 통신위성을 공부한 항공 2세대로 서울대 항공공학과에서 학사를 받고 미국 스탠포드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장녀는 부부가 의사로 활약

이후 통신위성관련 회사에서 4년간 근무경력을 쌓은 뒤 곧바로 텍사스주립대학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아리조나주립대학 항공우주공학과 정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위봉씨는 미국내 항공계에서도 알아주는 박사학위 항공우주공학회지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 주며 인정을 받고 있다. 서울대에서 항공공학과에 다닐 시절에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은 적도 있는데 당시 ROTC였던 위봉씨는 데모를 할 수 없는 위치여서 수많은 학생들이 한창 데모를 하고 있을때 위성규박사가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아들 혼자 앉아있었다고 한다. 교수 한명과 학생 한명만이 마주 보았지만 그래도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해 주었다.

차남도 美 하와이대서 교수로

장녀인 봉애씨는 아버지보다는 외할아버지인 최정열박사의 영향을 받아서 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장

티푸스로 돌아가는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는 최경희여사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딸의 의지가 너무 강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봉애씨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충남대 신경과의 창시자로 서울대 조교수 2년을 거친 후 현재는 을지병원 신경과 과장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봉애씨의 남편인 김浩根박사도 현재 세브란스병원 병리과에서 근무하는 등 부부가 함께 의학의 길을 걷고 있다.

차남인 병욱씨는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 미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하와이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부교수로 있다. 도시교통에 많은 연구를 한 병욱씨는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최근엔 도시교통중에서도 항공물류를 강의,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위성규박사는 현재 과학과 기술을 혼돈하고 있으나 공학은 엄연히 다른 학문이라고 전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공기술분야의 역사가 오래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와 전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아니고선 절대로 홀로 발전할 수 없는 분야라 한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도 항공은 미국과 소련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항공우주공학에 있어서 우리별 1·2호, 무궁화위성 발사 등 희망적인 사건이 많이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흐뭇하다고 한다. 위성규박사는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항공기술의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손재주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기술로 공산품을 만들어야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